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마을목회**

강 성 열*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마을목회의 실천을 위한 네 가지 핵심 키워드 |
| II.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탈종교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복음 전도와 성장지상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그것의 실천인 마을목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가 문을 열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한편으로, 복음 정신으로 지역민들을 섬기는 마을목회가 말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구약성서가 즐기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구약성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주어진 각종 율법 규정들의 실천에서 찾고 있는 바, 그것은 곧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공공선의 실천을 의미한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이나 초대교회의 마을목회 모델도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다. 신구약성서의 이러한 마을목회 모델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오늘의 한국교회는 최소한 네 가지의 실천 요목들을 마을목회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자신이

* 호신대 교수, 구약학, 호신대 부설 농어촌선교연구소 소장.

논문접수일 : 2021. 11. 6. 논문심사일 : 2021. 11. 29 게재확정일 : 2021. 12. 10.

** 이 글은 필자가 쓴 다음 세 개의 글들을 편집·수정·보완한 것이다. “농어촌 교회와 생명목회,” 『농촌 살리기와 생명선교』, 강성열 엮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3-23; “마을목회의 성서적 고찰과 실천,” 『마을목회, 세상 속으로』, 강성열·백명기 엮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7), 17-35;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와 마을목회,” 『선교와 신학』 44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13-41.

속한 지역 공동체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공공선을 실천해야 하며, 둘째로 한국교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주변 지역의 노년층을 섬기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호와 자비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이주민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차 닥쳐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비종교인들이 요청하는 공공선의 실천을 통하여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의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교회, 마을목회, 지역공동체, 약자, 노인, 고령화사회, 다문화사회, 자연생태계

I. 머리말

2년여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든다고 있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올해 초에 주요 언론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들의 내용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한 예로 한겨레신문의 2021년 1월 30일자 기사¹⁾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다. 그러나 1년 후인 2021년 1월에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얼마나 큰 타격이 주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 여파로 인해 모든 교회의 평균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30% 정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속칭 “가나안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조사하여 5월 18일에 발표한 조사 자료 역시 상당히 비관적이다.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탈종교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2021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나지만, 현재 종교

1)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79.html>: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2021년 10월 25일 검색).

를 믿지 않는 사람(=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는 비종교인의 천주교 호감도가 실제 교세보다 높고 개신교 호감도는 실제 교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특히 2014년의 개신교 분포도 21%가 2021년에 이르러 17%로 4%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온다.²⁾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윤리와 도덕의 회복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정답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교회 내적인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외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역할 역시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양한 지면을 통하여 충분히 표출한 바가 있다.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공공성(公共性, publicity 또는 public concern)의 약화야말로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이라는 지적이 그렇다.³⁾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에 앞서 국가의 방역 지침을 존중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세속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당한 논의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해법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가려는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 살리기 차원의 마을목회야말로 지금의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공공성 회복의 지름길이요,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놀랍게도 불교의 분포도는 2014년의 22%에서 2021년의 16%로 낮아져서 가장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2021년 10월 25일 검색).

3) 지난 2008년 11월에 한국교회를 향해 공적 책임을 일깨우고,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신학 과교회연구소는 매년 6회의 정기발표회와 2회의 공개강좌를 열었으며, 그간 발표된 글들을 모아 일곱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지난 6월에 출판된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문화』(서울: 북코리아, 2021)가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다. 그리고 필자가 속한 교단(예장 통합)에서도 지난 9월에 총회 주제 적용지침서로 다음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다. 류영모 외,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서울: 킹덤북스, 2021).

이에 필자는 2008년 4월에 설립한 농어촌선교연구소(홈페이지: <http://lifengongsun.com>)를 중심으로 하여 2013년부터 마을목회와 관련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고,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꾸준히 책으로 출간하였다.⁴⁾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마을목회의 실천이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로 하여금 심기일전하여 지역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지역 주민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 시킴과 아울러, 교회가 마을과 지역사회를 향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됨으로써,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⁵⁾

II.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가능케 할 마을목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서에 나타난 마을목회의 이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서가 가르치는 마을목회의 이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안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마을목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이를테면 마을목회의 다양한 내용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성서가 가르치는 마을목회의 실제적인 모습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추어 지금의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마을목회의 과제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의 핵심 요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구약성서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성서는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에

4) 강성열 엮음,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2008년 4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농촌 살리기와 생명선교』(2011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마을 만들기과 생명선교』(2013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운동』(2014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2016년 11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마을목회, 세상 속으로』(2017년 11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아웃리지를 통한 도농교회 협력과 상생』(2018년 11월, 한들출판사).

5) 마을목회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마을목회(지유와화해의생명 공동체운동10년)위원회 편,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21).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26-28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신분이나 계급 또는 나이에 의한 차별, 그리고 남녀의 성별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조금도 없었다.⁶⁾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어린이와 성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죄인과 의인 등의 이분법적인 차별의 구조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⁷⁾

이렇듯이 창조 질서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율법 규정들이다. 오경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법령집, 곧 계약의 책(또는 계약 법전, 출 20:22-23:33)과 성결 법전(레 17-26장) 및 신명기 법전(신 12-26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전들은 정의로운 공동체의 확립과 약자 보호를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본다면, 이 법전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의 농경 문화권에서 본격화된 도시화 현상과 왕정의 출현 및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인 불의나 불평등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보아 사회·경제적인 강자들이나 부요한 자들 또는 넉넉한 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과 그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행위 규범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이러한 사실은 이 법전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계층 질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

6)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 “구약성서의 창조론과 생태학,” 『오늘의 눈으로 읽는 구약성서』 (서울: 쿰란출판사, 2003), 12-56 (특히 20-25).

7)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E. Jacob,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 Arthur W. Heathcote and Philip J. Allcock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8), 166-172; C. Westermann, *Genesis 1-11*, tr. J.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144-160; 박준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사상』 369 (1989년 9월), 104-120; 강성열, “구약성서의 창조론과 생태학,” 『오늘의 눈으로 읽는 구약성서』 (서울: 쿰란출판사, 2003), 12-56 (특히 20-25).

8) Bruce V. Malchow, *Social Justice in the Hebrew Bibl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6), 22. 호프는 이것을 (1)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2)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하는 것의 둘로 구분한다: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셉 옮김 (서울: 나눔사, 1992), 17.

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평등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이 법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약자 내지는 가난한 자들이 강하고 부요한 자들에 의해 압제 당하는 사회적인 불의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는 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자신의 품성에서 찾는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강대 제국의 압제 하에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의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시고 불 드시는 분이라는 설명(출 22:21; 23:9; 신 24:18; 참조. 신 10:18-19)이 그렇다.

이러한 동기 부여는 결국 정의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응답임을 의미하며, 그것이 약한 자들을 공홀히 여기는 인간적인 관심사 내지는 자선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뜻한다. 이를테면 일주일 단위로 사회적 약자인 모든 종들과 나그네들까지 쉬게 함으로써 주변의 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명하는 안식일 규정(출 20:10; 신 5:14)⁹⁾이나,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하는 7년 주기의 민족적인 축제 규정(안식년, 출 21:2-6), 그리고 50년 주기로 땅과 집과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새롭게 출발하도록 명하는 희년 규정(레 25장) 등이 그렇다.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한국교회의 마을목회 과제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¹⁰⁾ 초기의 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1-2을 낭독하시면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눅 4:17-19). 그가 공생애 기간 동안 내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9)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의 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신 5:14).

10) “공생애”(公生涯, public life)라는 표현 자체가 그의 삶이 공공성을 가진 것이요,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성격을 가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복음이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곧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눅 7:22)이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마 25:40)은 그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든 자, 갇힌 자 등과 동일시하였으며(마 25:31-46),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 차별당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치료해주셨다. 참으로 그에게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 또는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 등이 전혀 없었다. 그의 이러한 사랑과 정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한 마디로 지역 공동체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공적인 삶과 마을목회의 전형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재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¹¹⁾ 성령으로 충만했던 당시의 성도들은 모든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행 2:44-45). 그들은 또한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 까닭에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행 4:32-37). 이것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삶 속에 옮긴 아름다운 마을목회의 모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처럼 공공성으로 충만한 마을목회의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마을목회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 류호성, “신약에 나타난 ‘마을목회’란 무엇을 말하는가?-복음서 기자들의 마을목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7), 53-65; 조광호,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을목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66-80.

III. 마을목회의 실천을 위한 네 가지 핵심 키워드

1. 지역의 약한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며, 2차(위기가구생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와 3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를 거쳐 4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이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제각기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및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2021년 9월 이후로는 5차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소득 하위 88%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일괄 지급되었다. 특히 5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국민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계기로 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상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기본소득제” 입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¹²⁾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경제활동 위축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존 위협은 단순히 정부가 나서는 것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의 심화가 한국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큰 숙제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 곧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줄이고,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

12)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 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서울: 박종철 출판사, 2010); Philippe van Parijs 엮음,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안효상 옮김(서울: 박종철 출판사, 2020); Malcolm Torry,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이영래 옮김(서울: 생각이음, 2020). 참고로 2013년에 결성된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15일에 필자도 참여했던 “기본소득 국제학술회의나”(연세대학교) 역시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지 않을 수가 없다. 달리 말해서 개개인의 품성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생겨나는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사회 정의의 차원¹³⁾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야말로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바람직한 마을목회의 요체요 공공선 실천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첫째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나 남에게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권 개념에 투철한 자는 당연히 자신의 것을 청지기의 심정으로 잘 관리할 것이며,¹⁴⁾ 남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특히 가난한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들의 것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은 절대적으로 삼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며 공공선 실천의 분명한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구약성서가 가난과 청빈을 종교적인 이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포기하고서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랑과 생명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¹⁵⁾ 재물은 때때로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풍요의 종교를 추구하게 하며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탐심의 죄를 범하게 하는 까닭에(참조. 엡 5:5; 골 3:5),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치고서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⁶⁾ 이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¹⁷⁾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

13)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는 당연히 구약성서에서 사회·경제적인 약자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및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차원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in H. G. Reventlow and Y. Hoffman (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228-46

14) 강사문, "재산에 대한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제9집(1993), 213-15.

15) 신약성서도 이 점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득중, "신약성서의 경제 윤리," 한국신약학회 (편), 『신약성서의 경제 윤리』(서울: 한들, 1998), 11-26.

16)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arles R. Strain (ed.), *Prophetic Visions and Economic Realities: Protestants, Jews & Catholics Confront the Bishops' Letter on the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7)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 G. F. Vicedom, 『하나

는 분명한 공공선 실천과 마을목회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2.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 배려

지금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최대의 위기 중 하나는 가임여성 인구의 급감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출산율 급락,¹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수 환경의 조성, 곧 영양 섭취의 놀라운 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노령인구 비율이 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그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한국은 26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⁹⁾

이렇듯이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노년 인구 부양으로 인한 조세 부담과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사회 구조의 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생산성(productivity) 상실의 차원과 관련된 노년층 차별(ageism)의 문제가 때로는 사회 구조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노령인구의 증가 내지는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이 한국사회의 키워드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달리 말해서 한국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생겨나는 고령화 사회 구조를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과 부조화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마을목회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을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허

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김은수, “Missio Dei의 기원과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사상』 94 (1996), 142-164.

1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인당 0.837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61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3.01명)과는 3배 넘게 차이 난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도 2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절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21년 10월 29일자 데일리굿뉴스 (2021년 10월 29일 검색):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20345 (“출산율 최저...뚝 끊긴 아기 울음소리”).

19) Frank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05), 63-64.

약하게 만드는 노화 현상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창세기의 여러 족장들이나 모세, 엘리,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어느 누구도 노년기에 찾아오는 각종 질병과 육신의 허약함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년기에 도달한 많은 신앙 위인들이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힘입어 자녀 출산을 비롯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더하여 노년기에 도달한 자에게는 젊은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창의적인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욥 12:12; 32:7; 잠 16:31; 20:29)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국교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⁰⁾ 사실,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노년기에 도달한 자들의 일부가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지혜 교사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잠 1:8; 2:1; 3:1 등). 노년층 공경이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균열된 사회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참조. 신 2:18-21).²¹⁾ 따라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젊은이들의 개척 정신과 모험 정신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는 사회 풍토 속에서, 지역 공동체에 속한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맞게 함과 동시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서 노년기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 공동체나 마을의 노년층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의미를

20) 장수하는 삶, 곧 백발이나 센 머리가 의롭고 지혜로운 삶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영화로운 것임을 강조하는 본문들(잠 3:2, 16; 4:4, 10, 22-23; 9:10-11; 13:14; 14:27; 16:31; 22:4)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계약법전(출 20:22-23:33)은 연로하여 힘이 없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출 21:15, 17). 그리고 레위기의 성결 법전(레 17-26장) 역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며(레 20:9), 신명기의 이른바 12계명(Dodecalog, 신 27:15-26)은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신 27:16)를 열두 가지 저주 규정들 중의 두 번째에 놓음으로써, 나이 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들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노년층의 지도력에 위기를 가져다줌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음을 전제하고 있다. J. Gordon Harris, *Biblical Perspectives on Aging: God and The Elder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7), 31-32.

발견할 수 있도록 노년층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노년 자원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조심스럽게 개척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급속도로 약화되는 노년층의 건강-특히 의료 시설이 약한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나 도시 빈민 등을 보살피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칫 소외당하기 쉬운 지역/마을 공동체의 많은 노약자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아름다운 노년을 가꾸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설령 (젊은) 사람들이 노년층을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이다(시 71:9, 18; 사 46:4).

3.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섬김

한국사회는 지금 세계화와 지구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1990년대 이후 이른바 3D 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이주 노동자)과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한(국제결혼 이주여성) 또는 자손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거나 농촌 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된(한국의 미혼 고령 남성)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함으로써 전통적인 단일민족 사회를 벗어나 급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²²⁾ 그들이 이제 3백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인구 통계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둔 한국교회는 다문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존·상생의 사회통합 문화를 일구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구약성서가 이스라엘 안에서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속한 이주민으로 ‘게르’(나그네/객/거류민 등으로 번역됨)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레 23:22; 신 10:18; 14:29; 16:11, 14; 24:17, 19 등). 달리 말해서 게르는 고아나 과부 또는 가난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 수단이나 법적인 보호 수단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다(레

22) 어떤 점에서 보면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도 국제적인 이주 현상의 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과 각주의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참조: 황홍렬, 『한반도에서 평화선교의 길과 신학』(서울: 예영 B & P, 2008), 179-237.

19:9-10; 23:22; 25:5-6; 신 1:16; 14:21; 24:17-21; 27:19 등).²³⁾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게르였고, 그들의 초기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름테면 족장 시대와 이집트 체류 기간-도 그들이 게르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²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체류했던 일종의 게르였으며, 한때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창 12:10)와 그랄 지역(창 20:1)에 체류하기도 했던 외국인이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체류하던 게르나 다름이 없었다(창 19:9).

그리고 후에 야곱과 그의 일가족은 이집트의 고센 땅을 일종의 외국인 거주지로 분양받아(창 47:4-6), 게르의 신분으로 장기간 그곳에 거주하였다(신 23:7; 26:5; 대상 16:19-20; 시 105:23; 사 52:4; 행 13:17). 이 때문에 야웨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방의 큰 은총을 입기 전에 오랫동안 게르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그들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동족이나 가족처럼, 즉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사랑하고 보살피줄 것을 다양한 법 규정들(출 22:21 [H 22:20]; 23:9; 레 19:33-34; 신 10:19)을 통하여 강조하신 바가 있다.

게르의 역사²⁵⁾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

23) 참조: John R. Spencer, "Sojourner," *ABD* 6 (New York: Doubleday, 2002), 103; 왕대일, "나그네: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104-105;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 (계명대, 2004), 515-519. 그런데 흥미롭게도 게르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Christiana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38-40;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27 (2008), 82.

24) 이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회후원회 엮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0), 133-135; 한동구, "족장들의 생활 양식 (II):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창세기 해석』(서울: 이마고데이, 2003), 231-233;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522.

25) 엄밀하게 말해서 게르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가나안 정착 이전 시기에 한정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게르로 간주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시기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을 소유한 이후로 더 이상 게르로 불리지 않는다: F. A. Spina, "Israelites as gērī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C.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약자들을 동족으로 간주하고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상의 본문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의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야말로 구약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외국인 약자들임이 분명해진다. 또한 그들은 일제의 압박으로 인하여 만주나 러시아 또는 일본, 미국 등지로 이주하여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게르의 삶을 산 적이 있던²⁶⁾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야 할 사람들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게르를 “너희 중에서 낳은 자”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한 레위기 19:34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주변의 지역 공동체나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한국 사람인 자신의 가족과 똑같은 자들로 간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을목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이며, 한국교회의 공공선 실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4.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계 회복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환경 파괴에 시달려온 자연 생태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들 한다. 재택근무와 원격업무가 증가하고 이동 제한과 여행 금지 등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쉼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냉난방기를 돌려야 하는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으로써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변화된 일상으로 굳어지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구촌 공동체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새로운 일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렇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에 있다고 본다. 갈수록 불어나는 세계 인구의 식량 수요를 채우기 위한 과도한 자연 파괴가 기후 변화와 삼림파괴를 초래하여 야생 동물들의 주거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인간과 야생 동물의 접촉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접촉이 야생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21-322.

26) 이태주,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간 한국인들의 다문화 경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의 이해』(서울: 동녘, 2008), 166-192.

27) Jason Schenker,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옮김 (고양: 미디어숲, 2020), 52-55.

동물의 바이러스를 인간의 몸에 전염시키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그렇다. 가축에 대한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의 저항성 증가와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확대도 무시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닐 수 없다.²⁸⁾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 까닭에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창조세계의 상호 침투성과 관련하여, 지구 생태계 회복에 관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한 개의 생명 망(life 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기후 재앙의 위기²⁹⁾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생명 공동체임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 자연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로써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최초의 인류는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의 내용은 인간의 운명이 자연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창 3:17-18).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형벌(창 4:12)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³⁰⁾ 노아 시대 사람들의 범죄 행태와 홍수 심판의 이유 역시 인간과 자연의 공동 운명을 강조한다. 인간의 범죄

28) 이진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교회의 환경교육,” 강성열 외,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서울: 동연, 2020), 245; 이종훈, “의학적 관점에서 본 전염병,”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56-58.

29)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10일에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다. 참조: S. McFague,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2008); 조명래·이정배, 『기후 붕괴 시대,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 (서울: 동연, 2010); 김준우, 『기후붕괴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대책』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2012); 반기성, 『인간이 만든 재앙,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 (서울: 프리스마, 2018);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간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서울: 21세기북스, 2020); 남성현,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서울: 21세기북스, 2020); Bill Gates,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 김민주·이엽 역 (서울: 김영사, 2021).

30)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더럽힌다는 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는 생각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레 18:24-28; 20:22; 민 35:33-34; 신 21:23; 렘 2:7; 16:18; 겔 36:16-20 등).

는 자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범죄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 관계에 있는 자연에까지 미치는 것이다(창 6:7, 11-12). 특히 창세기 6:11-12은 인간의 “포악함”(violence, ‘하마스’)이 땅을 오염시키고 부패케 하는 주범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의 비뚤어진 행동이 자연 생태계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한다.³¹⁾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행한 억압적이고 반생명적인 조치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주신 생육과 번성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창 1:28; 출 1:7)을 겨냥하고 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은 파라오의 반창조적인 죄악이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생겨난 생태학적인 재앙들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의 질서는 한결같이 자신의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이탈한다.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며, 빛과 어두움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무서운 질병들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밀어닥치며, 곤충들과 양서류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³²⁾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행동과 자연계 사이의 상호 공존·공생 관계는 땅의 휴식에 관해 규정하면서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땅의 생산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의 보다 나은 생존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출 23:10-11; 레 25:11-12, 18-22)에서 발견된다. 1주일 간격으로 인간의 노동을 중단시킴과 아울러 자연의 일부인 짐승을 휴식하게 하는 안식일 계명(출 20:8-11; 23:12; 신 5:14)도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동 운명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자주 발견된다(호 4:3; 암 5:8-9; 8:8-10; 9:5-6; 렘 4:23-26; 9:10-16; 사 2:12-17; 24:1-7, 17-23; 32:9-14; 겔 38:19-23).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 이후의 새로운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과 자연이 한 몸을 이룬 가운데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세계로 묘사하는 이사야의 예언 선포(사 11:6-9; 65:17, 25)가 그러한 바,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라는 이상의 가르침

31) T. Frymer-Kensky,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rael,” in C.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409.

32) T. E. Fretheim, 『출애굽기』,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77-187.

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선의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포괄하는 의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마을목회의 사명 수행에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IV. 맺음말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힘쓰면서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향해서 나아가던 기존의 사역 방향에서, 이제는 복음 정신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공공성의 회복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추가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서 공적인 복음과 공공신학의 확립을 산발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2년여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및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교단(예장 통합)이 제106회기(2022년)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정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거룩한 압박에 대한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을목회의 중요성을 통찰하고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사랑과 섬김의 손을 뻗어 공공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 것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인하여 부의 편중과 사회 계층의 양분화라는 왜곡된 경제 구조가 생겨났음을 올바르게 통찰하고서, 그 후유증이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서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지역사회의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공공선 실천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로 자라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섬기는 외적인 활동에만 몰두함으로써 교회 자체의 내적인 본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지나치게 내적인 본질과 사적

인 신앙 양육에만 매달리다가 마을목회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여김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출산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방관할 수만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곧바로 기독교 인구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요, 당장에 교회학교의 감소나 소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출산율을 높이는 국가적인 과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지역 공동체의 노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공적인 책무의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노년층을 섬기는 일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지역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줌으로써 교회가 안정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들의 어두운 곳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여 치유하고 보살피는 일 역시 공공성 회복과 마을목회의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사회와 지역 공동체에 적응하려는 이주민들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약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층 세력이요 우리 사회의 강자인 한국교회가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내부 결속과 일체감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요, 이주민들과 상생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공적인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마을목회의 소중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와 그것이 가져다줄 기후 변화 내지는 기후 재앙의 위협이 지구 공동체를 대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게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껏 교회가 생태계 문제를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느끼지 못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재앙)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음으로써 식량 위기가 초래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불안한 현실이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³³⁾ 무엇보다도 생태학적인 재앙의 성격을 갖는 코로나19

33) 그래서인지 사회 일각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농촌 거주민들 모두에게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을 우

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상호 공존·상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기후 변화 내지는 기후 재앙을 포함하는 생태계 신학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좁게는 지역 공동체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려는 마을목회의 공적인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넓게는 대한민국과 지구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문. “재산에 대한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제9집(1993), 211-246.
- 강성열. 『오늘의 눈으로 읽는 구약성서』. 서울: 쿤란출판사, 2003.
- 강성열 엮음.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강성열 엮음. 『농촌 살리기와 생명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강성열 엮음. 『마을 만들기와 생명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13.
- 강성열 엮음.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14.
- 강성열·백명기 엮음.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6.
- 강성열·백명기 엮음. 『마을목회, 세상 속으로』. 서울: 한들출판사, 2017.
- 강성열·백명기 엮음. 『아웃리치를 통한 도농교회 협력과 상생』. 서울: 한들출판사, 2018.
- 강성열.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와 마을목회,” 『선교와 신학』 44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13-41.
- 강성열·백명기 엮음,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농촌기본소득』(서울: 한들출판사, 2019).
- 강성열 외.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서울: 동연, 2020.
-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편.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문화』. 서울: 북코리아, 2021.
- 김득중. “신약성서의 경계 윤리,” 한국신약학회 (편), 『신약성서의 경계 윤리』(서울: 한들, 1998), 11-26.
- 김은수. “Missio Dei의 기원과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사상』 94 (1996),

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성열·백명기 엮음,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농촌기본소득』(서울: 한들출판사, 2019).

142-164.

김준우. 『기후붕괴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대책』.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남성현.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서울: 21세기북스, 20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회후원회 엮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류영모 외.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 서울: 킹덤북스, 2021.

류호성, “신약에 나타난 ‘마을목회’란 무엇을 말하는가?-복음서 기자들의 마을목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7), 53-65.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10년)위원회 편.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21.

박준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사상』 369 (1989년 9월), 104-120.

반기성. 『인간이 만든 재앙,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 서울: 프리스마, 2018.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왕대일. “나그네: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101-12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27 (2008), 70-88.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 (계명대, 2004), 511-525.

조광호.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을목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66-80.

조명래·이정배. 『기후 붕괴 시대,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 서울: 동연, 2010.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서울: 21세기북스, 2020.

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10.

한동구. 『창세기 해석』. 서울: 이마고데이, 2003.

황흥렬. 『한반도에서 평화선교의 길과 신학』. 서울: 예영 B & P, 2008.1

- Fretheim, T. E. 『출애굽기』,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Philippe van Parijs 엮음.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안효상 옮김.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20.
- Torry, Malcolm.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이영래 옮김. 서울: 생각이음, 2020.
- Gates, Bill.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 김민주·이엽 역. 서울: 김영사, 2021.
- Harris, J. Gordon. *Biblical Perspectives on Aging: God and The Elder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7.
- Hoppe, Leslie J.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섭 옮김. 서울: 나눔사, 1992.
- Jacob, 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 Arthur W. Heathcote and Philip J. Allcock.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8.
- Malchow, Bruce V. *Social Justice in the Hebrew Bibl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6.
- McFague, S.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 Meyers C. L.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 Reventlow, H. G. and Y. Hoffman (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Schenker, Jason.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옮김. 고양: 미디어숲, 2020.
- Schirmacher, Frank.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05.
- Spencer, John R. "Sojourner," *ABD* 6 (New York: Doubleday, 2002), 103.
- Strain, Charles R. (ed.). *Prophetic Visions and Economic Realities: Protestants, Jews & Catholics Confront the Bishops' Letter on the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van Houten, Christiana.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Vicedom, G. F.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Westermann, C. *Genesis 1-11*, tr. J.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데일리굿뉴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20345 (2021년 10월 29일, “출산을 최저...뚝 끊긴 아기 울음소리”).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79.html> (2021년 1월 30일,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년 5월 18일,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Abstract

Restoration of the Publicity in Korean Churches and Village Ministry

Kang, Sung-Yul (Th. D.)

(Professor, Old Testament Studies

Honam Theological Univ. & Seminary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reveal an important point that the hope of endangered Korean churches is in the restoration of the publicity in Korean churches and the village ministry, and to illuminate their practical task in the light of the various teachings of the Bible. The crisis confronting Korean churches has its root in the loss of their societal credibility, and is interlocked with the collapse of ethics and morality, the low birthrate, and a decrease in Christian youth population. In view of the sad reality of community breakdown in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Korean churches could be overcome by village ministry aiming at community restoration and the practice of the common good. The Bible emphasizes the theocratic community of the ancient Israel as the model of the desirable local community, which Korean churches must recover. In the Old Testament, ancient Israel's theocratic community refers to the faith community based on the exodus liberation and Sinaitic covenant tradition. And the faith community as the kingdom of God in the Bible has the protection of the weak as its important characteristic. Therefore, the task of village ministry which Korean churches aim at is to build a community of love and service living with the neighboring weak people in the dimension of social justice. In light of this, it comes out clearly that the important practical task of village ministry is for the local churches to serve their town people with lovingkindness, especially the neighboring weak people, the elderly people of the aging society, and the immigrants with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finally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Key words : Korean Churches, Village Ministry, Local Community, Weak People, Elderly People, Aging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Natural Ecosystem

토론문

농촌마을목회*

- 복내산촌생태마을 사례중심으로 -

이 박 행

복내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1. 소멸되는 농촌사회

내가 살고 있는 보성 복내면 일봉리는 전형적인 농산촌마을이다. 25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은 40명 정도이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7분의 어르신이 노환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적이 있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어 생산노동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고 돌보아 드려야 할 어르신이 태반이다.

농촌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다. 논농사 경작으로는 별로 순수익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000평(20마지기) 논농사 수입으로 연간 500만 원의 순 수익을 올리는 형편이다. 한 달 순수익이 대략 40만 원 정도이다. 이 정도면 대농에 분류된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연로하신 분들은 대리 경작을 시켜 수를 얻어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지금의 농촌 현실로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사실 농촌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커져이 쌓여 왔다.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은 생산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 유전자 조작식품 GMO와 다국적 식량회사의 종자독점으로 식량주권을 상실했다. 과도한 화학비료와 무차별적인 제초제 사용으로 땅이 죽어가고 있다. 도시인들은 죽은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농촌도 피할 수 없다. 이를 대처할 수 없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빈농으로 전락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다. 지금 농촌은 총체적 위기로 소멸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농촌에 대해 농촌교회는 어떤 응전을 해야 할까?

* 2021년 12월에 출간 예정인 <기후위기와 기독교 대응> 중 일부 발췌,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2. 복내산촌생태마을

2010년, 복내면 일봉리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어 4년에 걸쳐 산책길, 상수도 정비, 휴양형 펜션, 절임배추 공장을 구축하였다. 치유센터 산책로 주변으로 편백 나무를 식재하여 38만평에 삼림욕을 위한 둘레 길을 조성하였다. 이후 펜션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득 창출원이 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절임배추 공장은 7년 전부터 가동하여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임배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복내마을 영농조합법인을 10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마을기업은 특정인이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인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특수 관계 친인척이 50% 지분 이상을 가질 수도 없다. 마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2015년도에 전라남도 예비형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였다. 다양한 기업 운영과 관련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도 받았다. 천연식이유황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엘바이오텍의 물품과 기술지원을 받아 “유황절임배추”를 생산하였다. 일 년 내내 무르지 않는 아삭감과 당도로 소비자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주문이 집중적으로 모일 때는 일손이 부족하여 주민 모두가 동원되어 밤샘 철야로 물량을 생산하였다.

2016년에는 절임배추 3,300박스(1박스 당 20kg/ 총 66톤)를 생산하였다. 배추 및 양념재료 생산농가는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는 동일 면적 벼농사 대비 3~4배 수익률이라고 한다. 계약재배로 생산자는 판로 확보 걱정이 없고, 마을기업은 믿을만한 배추를 납품받을 수 있었다. 절임 작업을 하신 분들은 1달 여 동안 400만 원 정도의 큰 소득을 올렸다. 이는 논농사를 일 년 내내 지어 올릴 수 있는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다. 출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익배당을 해드렸다.

어느 해,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마을 이장님께서 땅도 장비도 없는 마을 분들에게 자신의 땅에 배추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을 하셨다. 배추 재배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성심껏 봉사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다. 생산이익을 골고루 분배하자는 취지였으니 온 마을 주민들이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복원되기 시작했다. 마을 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3. 행자부 마을기업 선정

기존 임대했던 공장으로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출자금을 추가로 모집하여 절임배추 및 김치가

공 공장을 확장 신축하였다. 2017년, 보성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전통음식개발체험관에 선정되어 김치 담그기 체험 공간을 설계하여 건축했다. 2018년, 김치공장 건축 및 HACCP인증을 받았다. 제품명은 암 환우를 위해 27년 동안 자연식요리를 해온 아내의 이름을 활용해 건강 품은 <최금옥김치>로 결정했다.

2019년 6월, 전라남도과 전남식품연구원 그리고 복내마을영농조합이 MOU를 체결하여 지역특산물 녹차를 이용한 기능성 김치연구를 시작했다. 유황배추김치에 유기농녹차와 특수유산균 ML7을 첨가하여 품질을 높였다. 연구결과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김치에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염 등 면역력 강화 기능이 입증되었다.¹⁾ 코로나 시대에 자가 면역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아삭함과 청량감이 돋보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블라인드로 실시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서도 일반김치에 비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²⁾ 2020년 5월 13일, 김치발효종균을 이용한 <보성愛녹차김치> 생산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다. 마을기업 설립 취지에 따라 믿을만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인에서는 매년 마을기업 취지에 따라 사회공헌 사업으로 장학금 기탁, 보성군 관내 중학생 전원 도서 기증, 다문화가족 돌봄 지원, 독거노인 김치제공, 녹차김치 출시 기념 암 환우 무료 김치 나눔을 했다. 2020년에는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운동에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다. 한편 산촌생태마을위원회에서는 한 해 동안 수익금을 전 주민들에게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분해 드렸다. 오랫동안 마을목회를 위해 인내하며 힘겨웠던 어깨의 짐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을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복내면 일봉리 일대를 생명농업 단지로 조성하여 믿을만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믿을만한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혜택은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동안 산촌생태마을과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농과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마을 분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등을 질 뻔한 일도 있었다. 무리한 계획과 실행으로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대출서류를 만들 때에는 도끼로 발등을 찍

1)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가 순천약학대학에 의뢰한 녹차김치 효능 실험 결과 자료집(2020년)
2)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의 의뢰로 전주대학산학협력단이 50인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 실시 결과

는 심정이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해 밭을 동동 구를 때가 다반사였다. 성직자가 김치공장을 세워 경영자로 사는 것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것도 나를 힘들게 했다. 오지 환경으로 아이들도 어렸을 때에 부모를 떠나 자신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아내도 나의 뜻을 온 몸으로 뒷바라지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문자답하곤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친구로 사셨다. 소멸되어가는 농촌과 농촌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가 마을을 지키고 생명의 터전을 일구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다. 결국은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어 공생 공존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마을기업 운동은 자본주의 폐해로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이 사회와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마을을 살리면 작게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크게는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4. 변화되어야 하는 농촌교회!

복음과 상황은 분리될 수 없다. 상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생명력이 충만케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농촌은 선교지의 땅 끝이며,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의 전환기이다. 농촌은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생명망(web of life)의 근간이다. '변화하는 농촌과 변화되어야 하는 농촌교회'를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2019년 예장 합동 총회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³⁾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제의를 주관하는 일에만 스스로의 역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농촌이 강도를 만나 죽어 가는데 목회자들이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치는 격이다. 이제라도 지붕 없는 교회인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재건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빈부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농촌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신학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마을 내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돕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목회자 생활비 보조를

3) 예장합동 총회 농어촌부 목회자 세미나 자료집

넘어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 후원해야 한다. 권역별로 의지가 있는 교회를 선택과 집중 지원하여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된 농촌 상황에 맞는 선교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농촌교회 시니어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가 없는 실정이다. 농촌교회의 목회자들이 도시교회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농촌이 가까운 지방 신학교에는 농어촌목회 전문과정을 서둘러서 개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뻐하신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 생태가 공생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심화된 빈부양극화 극복을 위한 생태정의회복과 사회적 경제활동,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⁴⁾ 교회가 포함된 마을목회는 ‘자급·자전·자치’로 대표되는 현대판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다. 이를 위해 총회는 기후환경대응위원회 설치, 생태 및 일터신학 필수 교과목 개설, 생명생태목회를 위한 교육 매뉴얼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교회를 넘어 농촌마을 전체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로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 답은 단순하다.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용옥은 국민총행복을 위한 <농산어촌 개혁 대행진>에서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안한다.⁵⁾

농촌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 농촌주민들에게 의료, 교육, 주거, 돌봄, 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익적 직접 지불을 확대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기존의 농림어업 생산보조금을 줄이고,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먹을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먹을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농촌주민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재정을 농촌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지킴이’ 수당으로 지급하여 빈사상태의 농촌경제와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촌 경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4) 제5차 한국생명신학포럼 자료집 <위드 코로나와 통전적인 목회 대응> 참조

5) 김용옥, 동경대전 강의 <농산어촌 대개혁행진> 선언문 일부 인용

농촌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농촌주민 스스로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5.16이후 중단된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키고, 마을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나가 생명의 플랫폼을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정언명령을 따르기 바란다.

